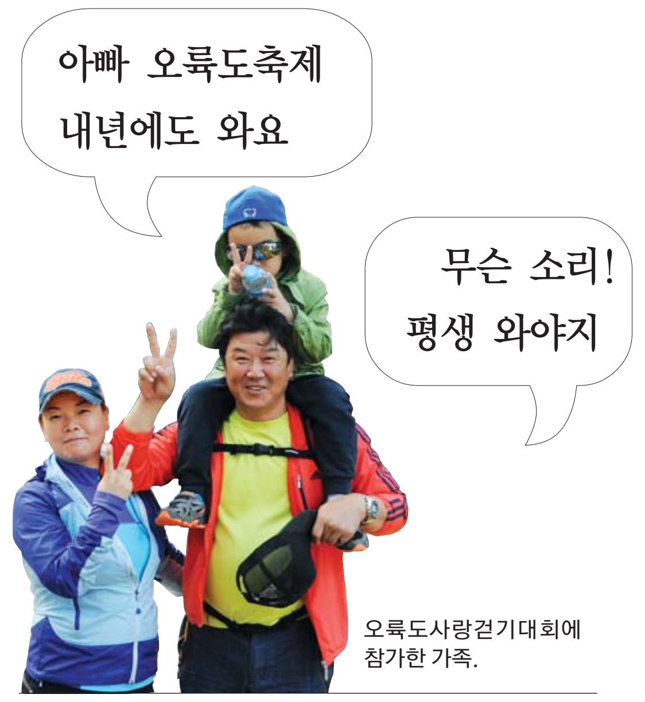
사진으로 만나는 제18회 오륙도 축제

"엄마, 저 아저씨 너무 웃겨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포복절도 시키는 개그슈퍼스타 공연이 오륙도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군악대의 풍악 해군작전사령부의 군악대가 축제 둘째 날 백운포 야외잔디에서 주민들을 향해 흥겨운 음악을 연주했다.

KNN 쑈! TV유랑극단

개막식에 이어 펼쳐진 KNN쑈! TV유랑극단 공개방송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다. 예선을 통과한 남구 주민 9명이 마음껏 끼를 발산했다. "시집 좀 보내달라"며 사회자에게 떼를 쓴 문현1동 김복식 할머니와 6살 트로트 신동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오륙도사랑걷기대회에 참가한 가족.

▲

풍성한 박람회도 볼거리 축제 기간 주민자치박람회와 복지박람회가 열려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복지박람회는 총 24개 기관이 참여 16개 부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

국제연날리기 대회

오륙도축제 특별행사로 제44회 국제연날리기대회가 백운포체육공원 야구장에서 국내외 민속연보존회원 61명이 참가한 가운데 11, 12일 이틀간 열렸다.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동아리들의 경연대회가 뜨겁게 열렸다. 15개 팀이 참여한 경연에서 30~60대로 이루어진 대연1동의 '평화요가팀(사진)'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0km, 9km, 8km…"
"이 소리는 합천에 사는 어르신이 버스에서 소변 참는 소리입니다."
용호동 출신 개그맨 김원효를 비롯한 KBS 개그콘서트 소속 개그맨 10명이 출연한 개그슈퍼스타가 1시간 30분간 관람객을 웃겼다.

내가 우리마을 슈퍼스타 오륙도사랑걷기대회를 마치고 백운포 특설무대에서 개인별 장기자랑 경연이 펼쳐져 우승자에게 각종 경품이 지급됐다.

매직페스티벌

현역에서 활동하는 마술사들이 공중부양, 샌드매직 등 4가지 테마 마술을 펼쳤다. 사진은 특설무대에서 순식간에 탈을 바꿔 쓰는 중국의 3대 전통 연희로 꼽히는 변검을 공연하는 모습

전통성년례

(사)부산전통문화원 주최로 평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3회 전통성년례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성년식을 올렸다.

■ 한정미 명예기자의 오륙도사랑걷기대회 참가기

"웃고 걷고 사진 찍고, 잊지 못할 가을의 선물"

지난 11일 토요일 오후2시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체육공원. 알록달록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넘쳐났다. 오륙도사랑 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이다. 태풍 '봉퐁'의 영향으로 참가 인원이 적지 않을까 우려했던 건 기우였다.

간단한 식전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걷기대회 총성이 울렸다. 코스는 체육공원을 출발해 이기대 순환도로와 오륙도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거쳐 백운포 체육공원에 이르는 약 6.5㎞구간.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부부도 있고 애완견과 함께 걷는 사람도 제법 눈에 띈다. 손에 손을 잡은 가족들은 마냥 즐거운 모습이다. 늦게 도착한 참가자들은 파도처럼 쏟아져 나오는 인파를 헤집고 거슬러 출발점으로 가서 경품권을 받기도 했다.

이기대 순환도로로 접어들자 제법 가을 기운이 느껴진다. 어느새 울긋불긋 물든 가로수와 바람에 쓸려다니는 낙엽들이 운치를 더한다. 그곳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이미 가을풍경이 돼 버렸다.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바다와 파도소리, 솔바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멋진 풍광을 자아낸다. 늘상 오는 곳인데도 마음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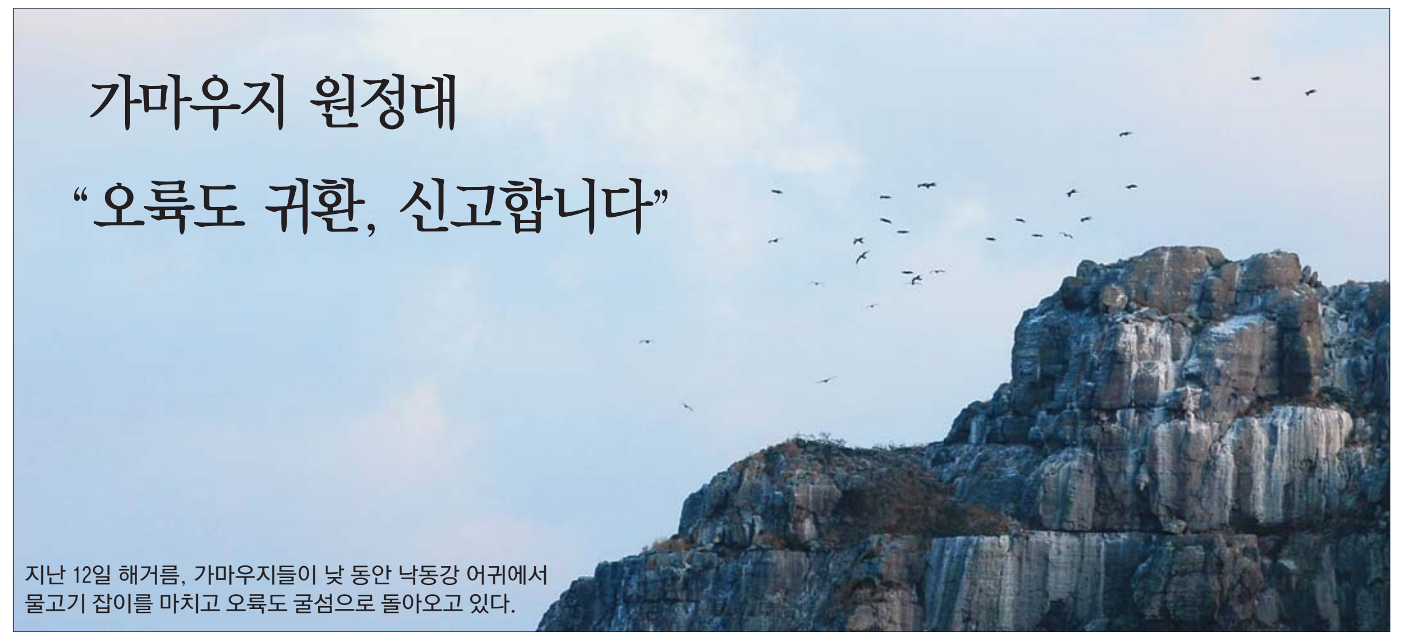
이기대공원 관리초소 앞에 이르자 이마트 문현점 직원들이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다. 목을 축이고 한참을 걸어 치마바위 들머리에 이르자 벤치에 앉아 쉬며 숨을 고르는 사람들도 보인다. 경치 좋은 곳곳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 찍기에 여념 없는 모습은 또 다른 볼거리다.

포토트레킹을 겸한 걷기대회라 주최측이 이기대와 오륙도를 배경으로 해 휴대전화로 셀프카메라를 찍어 전송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큰 고개 쉼터에 이르자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어온다. 군부대 왼쪽 오솔길로 접어들자 해맞이공원이 나타나고 바로 눈앞에 푸른 바다와 오륙도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천혜의 절경을 놓칠세라 오륙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저마다 특별한 추억 만들기에 푹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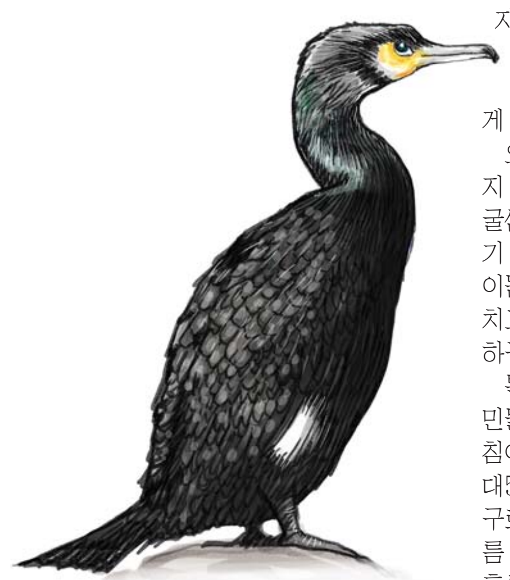
감만1동에 사는 오정희(36)씨는 다섯 살, 아홉 살 된 두 딸을 데리고 참가했다. "포스터를 보고 오게 됐는데 도중에 업어달라고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라며 내년에도 꼭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가진 경품 추첨은 걷기대회의 또 다른 양념이었다.

가마우지 원정대 "오륙도 귀환, 신고합니다"



지난 12일 해거름, 가마우지들이 낮 동안 낙동강 어귀에서 물고기 잡이를 마치고 오륙도 굴섬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달초 1차 선발대 40마리 예년보다 한달 일찍 찾아와



삽화 김정휘

■ 민물 가마우지 생태
- 수명 : 15~20년
- 생활양식 : 무리 생활
- 크기 : 80~110㎝
- 몸의 빛깔 : 검은색, 흰색
- 서식지 : 남해 거제도, 서해 앞바다 섬 등
- 먹이 : 물고기
- 특기 : 잠수로 헤엄쳐 물고기를 잡음
- 알 낳는 시기 : 5월 하순~7월

이달 초 오륙도 등대지기로부터 가마우지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30~40마리가 1차 선발대로 왔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예년에 비해 한 달 넘게 일찍 온 것이다.

오륙도의 굴섬은 국내 최대 민물가마우지 월동지다. 민물가마우지들이 언제부터 굴섬을 점령했는지는 알 수 없다. 등대지기 등 목격자들에 따르면 해마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2000~3000마리가 진을 치고, 출퇴근 하듯 정확한 시각에 낙동강 하구를 오가면서 굴섬에서 숙식한다.

특히 12월부터는 저녁 굴섬에 날아드는 민물가마우지의 비행이 일대 장관이다. 아침이면 영도를 거쳐 다대포 몰운대나 다대5지구의 아파트 능선을 넘어 낙동강 하구로 먹이 활동을 하러 갔다가 오후 해거름 출근길을 따라 퇴근해 굴섬에서 집단 휴식을 취한다. 굴섬 위쪽이 눈처럼 희게 보이는 것은 이 가마우지들의 배설물 때문이다.

굴 섬 바로 옆 오륙도 등대가 빙빙 돌아가면서 불빛을 강렬하게 비추고 인근 아파트단지 의 조명이 가세해도 가마우지들은 이사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륙도가 그만큼 평온하고 풍요롭기 때문일 것이다.

민물가마우지는 가마우지과에 속하는 대형종으로, 바다, 강, 호수에 살고 우리나라 남해 거제도와 서해 앞바다 등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다. 남부 지역에서는 텃새가 된 녀석들도 있다.

민물가마우지는 우아한 새는 아니다. 긴 부리는 휘어져 있고 몸은 둔해 보인다. 그래도 긴 목을 쭉 뺀 채 직선으로 날아다니는 데 아주 빠르다.

우리나라에는 민물가마우지, 가마우지, 쇠가마우지 3종이 서식한다. 가마우지는 물고기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타고난 물고기 사냥꾼이다. 물속에서 1분 넘게 잠수해 물고기를 잡는 능력을 갖고 있다. 가마우지는 수면에 가만히 떠서 날개를 활짝 펼치는 동작으로 사냥을 시작한다. 그러면 물속에 그림자가 생기고, 물고기들은 그 그림자 속으로 다투어 몰려든다. 바로 그 순간을 노려 잠수해 물고기를 낚아챈다. 물고기들이 그늘진 곳을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한 멋진 사냥술이 아닐 수 없다. 또 무리 지어 합동해 물고기를 몰이해 사냥하기도 한다.

옛날 중국과 일본 일부 지역에서 가마우지를 활용해 물고기를 잡기도 했다. 길들인 가마우지의 목을 살짝 묶은 뒤 물 위에 풀어놓으면, 사냥감을 포착한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고 물어오면 어부가 꺼내는 방식이다. 일본 교토 우지강의 가마우지 낚시는 역사가 무려 1300년이나 거슬러 가는데 현재 세계적 관광상품이 되어 있다. 여하튼 가마우지들의 이른 귀환이 반가울 뿐이다.

글·사진=백한기
(국제신문 선임기자·조류생태 연구가)

가을 축제 끝나지 않았다

제6회 부산갈맷길 축제 11월 7~9일 이기대 일원

걷기 축제인 제6회 부산 갈맷길축제가 오는 11월 7~9일(3일간) 황령산, 이기대 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부산시와 국제신문이 주최하고 (사)걷고싶은부산이 주관하는 이번 걷기 축제는 7일 황령산 달빛걷기(선착순 500명), 8일 이기대 해안길 걷기(2000명), 9일 APEC 나루공원~오륙도구간 갈맷길 완주자대회(200명 참가)가 열린다.

특히 8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되는 이기대 해안길 시민 걷기 행사는 거리공연과 경품 추첨 행사도 갖는다.

참가 신청 ☎(051)505-2224~5
www.greenwalking.co.kr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 11월 5일 정기연주회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단장 이종철)의 2014 정기연주회가 오는 11월 5일(수)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다. 지난해 8월 구립합창단으로 재창단 후 처음 갖는 이번 연주회는 '옛님' '내영혼 바람되어' '두껍아 문지기' 등 국내외 가요 등 11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무대로 양승엽, 차경훈 성악가의 중후한 목소리와 부산시향 트럼펫 수석 드미트리 로카렌코프의 환상적인 공연도 열린다.

제6회 하수처리장음악회 10월 31일 남부사업소

문화와 환경, 오케스트라와 클래식 그리고 갈라콘서트를 추구하는 '제6회 하수처리장 음악회'가 오는 10월 31일 오후 7시,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하수처리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성악가, 아이돌 가수, 대중가수와 7080 가수 등이 참여하는 이번 음악회는 시민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처리장 음악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오던 하수처리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환경기초시설의 과학적 운영에 따른 변화된 모습을 많은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시인·수필가 등 회원 17명 오륙도시낭송회 발족

남구 문인들로 주축이 된 시낭송회가 결성됐다.

시인, 수필가 등 회원 17명으로 구성된 오륙도시낭송회(회장 류수인)는 지난 9월 23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에서는 7번째 낭송회다. 류수인 회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 시를 쓰고 읊는 풍류의 멋을 즐기기 위해 낭송회를 만들었다"며 "시인과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시를 낭송해 삭막해져 가는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드는데 일조하자"고 말했다. 오륙도시낭송회는 평화공원 등에서 정기 낭송회를 갖는 것 외에도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를 찾아 열린 시낭송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오륙도시낭송회는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평화공원 국화전시회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26일 오후 2시 시낭송회를 가질 예정이다.

감만창의문화촌 신명나는 '돌잔치'

감만아트페스티벌 3000여명 발길
감만예터·사진전 연말까지 운영

감만동 감만창의문화촌이 개관 1주년을 맞아 신명나는 '돌잔치'를 열었다. 지난 17~19일 사흘간 감만창의촌에 입주한 작가들과 지역주민들이 어우러져 마련한 감만아트페스티벌에 감만동 주민과 외부 관람객 등 3000여명의 다녀갔다. 행사는 끝났어도 가장 인기를 끈 감만예(藝)터와 감만의 옛 모습을 담은 추억의 사진전은 각각 연말, 11월 16일까지 이어간다.

페스티벌은 감만동 어르신들로 구성된 감만할매합창단의 멋스러운 노래가락을 시작으로 감만DJ다방, 감만풍물패, 남산놀이마당, 지역주민노래자랑, 감만예(藝)터, 옛 사진전, 영화상영 등 흥겨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입주 작가들도 페스티벌에 동참했다. '감만사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픈스튜디오 행사는 입주 작가 14명의 작업공간을 일반인에 공개했다. 예술체험방에서는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도 가졌다. 또 인형극, 무용, 문학, 음악 등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꿈꾸는 피노키오' 콘서트가 야외무대서 열려 많은 호응을 받았다.

운동장에 마련된 감만예(藝)터가 단연 눈길을 잡았다. 헌 현수막 등을 활용한 만국기, 페트병트리, 날개(감만천사), 단심줄놀이 등을 만들었다. 5층을 개조하면서 나온 폐목재로 만든 상상오두막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

감만창의문화촌 행사 2제

감만창의문화촌는 오는 11월 1~2일 이틀간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교육축제 '여기가 꿈지(地)!' 행사를 개최한다. 미술난장, 한지붕아래 3세대, 밴드공연, 연극공연 같은 문화공연과 포도송이 비즈체험, 리사이클링 아트, 헤어핀 만들기 같은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자화상 및 꼴라주 작품, 비즈 및 한지공예, 골목영화 만들기 상영 등을 가진다. ☎745-7285

이밖에 감만창의문화촌은 '12월의 선물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오는 11월 18일~12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오후 2~4시) 벽걸이 리스, 촛대 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등을 한다. 재료비 2만원. ☎745-724

제2회 부산스토리텔링 축제

부산의 '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한 제2회 부산스토리텔링 축제가 오는 11월 12~13일 거제동 국제신문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축제의 컨셉트는 '스토리 음악다방, 아가씨 차 한잔 합시다'로 스토리축제, 비즈니시 세미나, 전시체험으로 구성된다.

축제 이틀째인 12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마술·샌드아트공연, 금리자연극, 가수 추가열을 게스트로 한 음악다방, 뮤지컬 등이 벌어진다. 국제신문 4층 중강당과 로비에는 DJ박스, 캐리커처 체험, 마술, 마임 등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부산사투리대회, 어린이를 위한 레이저쇼, 변검쇼, 매직쇼 등이 펼쳐진다. ☎505-2030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뻐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10:30~11:50
오후 6:40~8:0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

밀양 朴家 국밥
국밥매니아의 달인 부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향토음식~ "돼지국밥"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과 열정만으로 성공창업을!!
기술 전수 및 Open까지 일주일이면 OK!!
우암본점 홀판매/문현직영점 배달판매
(두가지를 겸할수 있는 노하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배달지역 : 문현전역, 우암, 대연동일부
▶ 소자본 맞춤식 창업을 도와드립니다 ◀
기존매장 (중화요리, 배달한식, 치킨류) 전업환영
인테리어 기존사용! 필요시 점주 직접시공!
문현직영점 · 배달전문 636-9882 (국밥빨리)
체인창업문의 ☎ 010-2866-3137

성인반 입학안내
주간반 ▷주부조리반
야간반 ▷주부조리반, 일반인반, 직장인반
"고등학교 학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성인이나 청소년"
■ 2년만에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 무시험으로 전원 대학진학
■ 각종조리사자격증 취득(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바리스타자격증)
■ 직장인을 위한 반 개설
－출퇴근시간 지장 없습니다
－직업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상담
■ 기초생활 수급자는 학비 무료입니다
■ 문의전화 523-0209, 010-3915-5633
부산경호고등학교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을
낮 시간동안 가족처럼 돌봐드립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에서 어르신 신체수발, 가사활동 등을 도와드립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을 센터로 모시고 와 낮 동안 보호해드립니다.
(점심 및 간식제공, 건강체크, 인지활동, 미술치료, 나들이 등)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위드아시아 with ASIA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용호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상담 : ☎628-6737~9

어머니 중.고등 학생 모집
중학교는 수업료 및 교과서 국비지원
－1년 3학기제로 2년이면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
● 대 상－성인여성 누구나
● 모집인원－중2학급(90명), 고2학급(90명)
● 접수기간－2014년 10월 1일 부터 선착순모집
● 특 전－1. 수업료 전액 및 교과서 국고지원(중학교 과정)
2. 미용사 면허증 발급(고등학교 과정)
3. 통학버스 무료운행(서면 전철역, 10분 거리 위치)
4. 국·영·수·한문·컴퓨터등 기초부터 쉽게
5. 교육부 인가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장 수여
6. 중·고 중퇴자 편입가능, 중퇴당시 학력인정 최단시일내 중·고 졸업가능함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배움에 나이가 있나요?
어머니 중.고등학교로 오세요~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성인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119번길)
문의전화 (051)805-6134
검색창에 부산미용병설중고등학교 로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bam.hs.kr

2012년~2015년 부산시 인증평가 우수시설
구세군 부산요양원
입소안내
- 65세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3,4,5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단, 3-5 등급 시설급여 판정 받으신 분)
서비스 안내
- 의료 서비스 : 집중간호, 건강검진, 촉탁의 진료
협약 병원 : 서호병원, 그린한의원
- 여가 서비스 : 계절별 나들이, 경로잔치, 야외 프로그램
- 물리, 작업치료 서비스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부모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51)623-3323 부산시 남구 용소로 7번길 105번지
경성대, 부경대역 1번출구 여성회관 뒤 (도보 10분)

신일 이불 솜공장
▪헌솜을 틀어서 새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불 꿰매 드립니다.
▪혼수이불, 침대카바, 애기이불 있습니다.
▪100%목화솜, 명주솜, 베개솜 있습니다.
☞ 위치 : 남구 동명로 146-47 (용호동)
☎ 051)626-3558
☎ 010-3831-2457

맛나 감자탕 용호점
더치커피가 있는 외식공간!
160평의 넓은 공간
놀이방 및 주차장 완비
남구 용호3동 84-5 (이기대 입구 외식명가2층)
628-3388 포/장/배/달/가능

불후의명곡 아카데미 회원 모집
-. 7080 대표 가요와 발라드곡으로 구성된 명곡 50곡으로 교재와 CD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 노래를 처음 배우는 분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강의합니다.
선곡에서 수업의 내용까지 타노래교실과는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 주 1회 수업이며, 신청자가 가능한 요일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 ★ 월 4:00~5:30 / 월,화,수,목 6:30~8:00 / 토,일 7:30~9:00
★ 장소 ★ 문화공간 달빛콘서트
※ 드럼강좌(신설) : 토 4:30~5:40, 통기타강좌 : 토 6:00~7:10
문·화·공·간 달빛콘서트 기념음반제작 / 통기타교실 / 드럼교실 / 각종모임대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8-2번지(부경대학교 후문쪽) ☎701-7072

국비실업자 과정 개강 내일배움카드제
대상 : 신규실업자, 주부, 야간대학생, 취업준비생

컴퓨터활용능력1급	11월 03일 11월 12일	58회차 59회차	오전 9시 오후 3시
실무엑셀	11월 10일	20회차 21회차	오전 10시 오후 3시
웹디자인	11월 03일	8회차	오후 12시

★ 교통비 : 매월 50,000원 지급 ★ 식비 : 매월 66,000원 지급 (1일 2과목 5시간)
국비직장인 과정 개강 11월 18일 컴활과정 ▶화,목
고용보험 가입자/직장인배움카드
일반 컴퓨터 기초, 중급, 고급과정은 1:1 개인수업 합니다!!
컴퓨터 자격증 전문학원 천일컴퓨터학원
용호동 LG 메트로왕 우리은행 4층 Tel) 621-2169
www.chonil.com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주신 사랑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우리집 가족 건강도 지키고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성도 지키세요!
KEPCO 한국전력 남부산지사 국번없이 123 (핸드폰 051-123)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하우스
어르신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자하는 임마누엘하우스요양원입니다.
늘 어르신들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의 마음으로 한분한분 모시고싶은 마음입니다. 해가 거듭날수록 많은분들이 병환의 고통에 시달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생긴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저희 임마누엘하우스에서 대신하고자하오니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 입소대상 : 노인성질병(치매, 중풍, 뇌졸중 등)을 가지신 1등급~3등급
▪ 기본제공서비스 :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위생(목욕)서비스 등 24시간제공
※ 연계병원 : 온종합병원, 춘해병원, 제창한의원
지하철2호선 문현역 4번출구 문현여중 옆
24시간항상 ☎051)633-8488~89